

# 인생은 가도가도 끝없는 '파도' 본래 마음에는 하등의 문제 없다



봉은사 초청 법회,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

서울 봉은사(주지 진학)에서 진행 중인 강주스님 초청 두 번째 법회가 6월 5일 봉은사 범왕루에서 진행됐다. 두 번째 초청 강자인 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은 형식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옮기는 불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법문 전문을 요약했다.

### 법문 듣는 복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청복(淸福)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병든 사람이 좋은 약을 찾고, 꽃밭이 꽃을 찾아 꿀을 모으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십시오.

오늘 법문을 형식적으로 듣고 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한두 사람이라도 부처님이 남긴 도와 여래의 종자를 심어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을 듣고 난 후에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익과 희망, 집착, 괴로움, 비방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타려면 바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바다에는 자이언트 조개가 있습니다. 한 번 자면 1000년씩 삽니다. 1000년 자고 일어나서는 "파도 때문에 한 숨도 못 잤다"고 이야기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이언트 조개와 같이 쫄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요. 너저분하게 껌처럼 달라붙어 사는 칙칙한 삶이 아니라 '이 순간' 벗어나야 합니다. 잠을 확 깨야 합니다. 눈과 귀는 법문을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남을 헐뜯고 시비분별하고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는 환희에 차서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합니다. 법문을 듣고 당장 행복하다면 세세생생에 죽어서 가는 세 가지 괴로운 세계인 지옥도·축

생도·아귀도 삼악도에 빠지지 않고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법문은 콩나물시루에 붓는 물과 같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죽시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오히려 물이 안 빠지면 콩나물은 썩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고 범왕루를 나가는 순간 지식적인 내용의 법문은 모두 다 잊으십시오. 지식적으로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살면서 실행으로 바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 마음은 무엇인가

일체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시시비비하고, 남 잘 되는 것을 못보고, 남이 자신에게 하는 나쁜 소리에는 잠시도 버티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하는데 왜 우리는 안될까요.

아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즉시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성불한 뒤 "은 대지는 황금으로 덮여있는 것과 같고 온 나무는 보배의 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는 것 같다. 일체중생이 실유불성이라. 나와 불성이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러나 미혹한 중생은 업장이 두꺼워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구나" 라고 합니다.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따라 왔으면 이제는 알아야 할 텐데 매일 잊어버립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생불멸 불구구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희노애락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집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기쁨을 좋아하며 집착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입니다.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 즉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좋아도 좋아할 만큼만 좋아하고, 너무 싫어도 싫어 할 만큼만 싫어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色即是空空即是色 色不異空空不異色)' 이구나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은 경전은 읽지 않고 오직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며 남들을 찬탄할 뿐이었습니다. 상불경 보살이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상불경 보살은 줄행랑칩니다.

사실 도망가면 조금 쪽팔립니다. 하지만 상불경 보

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몸에서 받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먼 시절부터 조각조각이 모여 사람들이 만들어진 말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마치 내 것인양 쓰고 있습니다.

마음도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중중무진 연기로 이뤄져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돼 세상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물이 어떻게 잘났는지 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며 형식적인 것에 집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집 덩어리는 우리 내면의 칠보탑을 보지 못합니다. 아집을 없애고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먹는 음식에서 오신체를 가려야 합니다. 둘째, 주변에 독하고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원망하고 음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눈앞에 닥칠 때마다 정의감과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유연하게 사는 것과 연약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연약한 것은 아비할 수 있지만 유연한 것은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신심을 일으키려면 탁한 음식을 먹지 말고, 잠을 조복하고, 말을 조절하십시오. 이 중에서 말 조절만 잘하면 성공 확률은 95% 올라갑니다. 말을 잘 해

야 합니다.

우리 노스님(영암 스님)은 공양 받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 맛이 특이 하네요"라고 말합니다. 맛 없다는 말 대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쓰고 짠 음식에 대해서는 "아- 이거 신기 합니다"라고 해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입장을 녹이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신·육체적인 힘과 인연의 힘으로 모든 이에 게 이익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시를 할 때에는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참회를 해야 합니다. 계를 잘 지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욕심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참회입니다. 지나간 일을 뒤우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다라니를 해야 합니다. 정진다라미를 합니다. 정진을 하면 같은 것을 반복해도 싫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몸에 새겨집니다.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봄 되면 꽃 피듯 자연스러운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작은 데에도 진실 되고 집중하게 되고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생깁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은 작은 축구를 듣고 진심과 진력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작은 공에 불과하지만 박지성의 노력이 공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늘에 대해서 좋아하고 작은 것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든 사람,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영겁의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의 점을 이루며, 지금 당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맑고 집착 없이 산다면 가지고 못가지고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좋고됨이 되지 않는 마음, 만년이 지나도 당장 지 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 업장은 어떻게 해야 소멸 할 수 있나

《천수경》에는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라고 합니다. '백겁적집 쌓인 죄업이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불태운 듯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백겁적집죄 기억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업장이 돼 돌아옵니다.

얼마 전 빈 라덴이 사살 당했습니다.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원한을 일으키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원한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자기가 안목을 열지 못하면 스스로 아귀지옥 무간지옥에 갇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코입귀가 진리를 말하고, 보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장 정직하십시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수행자도 부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근심걱정은 특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가도 가도 끝없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정리·이상연 기자**

##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 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범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우고자 봉사하고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